

우리 사회는 지난 60여 년간 전쟁과 분단, 군사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 겪었던 국가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드러내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발걸음을 떼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1월호부터 연재되는 '역사와 트라우마'는 한국 현대사가 꺼안고 온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 함께 나누고 그 치유책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역사가 남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전쟁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와 왔더니 왜 전쟁에 관심이 많냐고 물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일이고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관심이 가는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썽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의 부모 세대만 해도 전쟁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하던 친구는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모습으로, “그런데 왜 지금 이 세대의 네가(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얼버무리네요.

생각해 보면 저의 부모님 역시 전쟁(한국전쟁)에 관해서는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무서웠다는’ 말을 먼 친척에게 들었다는 아주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잠깐 전했던 당신의 가장 최근의 역사적 기억으로는 '87년의 광장에

서 허연 와이셔츠를 걸어붙이고 서로 어깨동무를 한 것'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그것도 부모 세대의 과거가 되어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쟁, 독재, 국가의 폭력, 파괴당한 삶, 그리고 시민의 움직임. 어느 젊은이가 이것은 '오래 전에 지나간 일'이며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 역사는 마치 나와 너무나 무관하다는 듯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에게 역사는 그것이 무엇이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어떤 얼버무리며, 삶과 괴리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십 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기억에 관한 역사 인식도 가슴에 품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무관한 현재란 없고 현재와 단절된 과거란 없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역사 인식은 마치 섬처럼 덩그러니 고립된 채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거세게 울부짖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폭력의 근대화, 건국초기의 혼란과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민 통제, 파병, 의문사, 민주화 운동 탄압, 간첩 조작, 경찰 폭력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울부짖습니다.

섬 안에서는 오직 깊은 숲 속에서만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거나 삶을 도탄당한 사람의 세월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오직 거센 파도로 일렁이는 말없는 바다뿐. 개개인들은 멀찍이서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힌 채 국가가 규정한 국가의 역사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역사가 또한 모두의 역사일리는 없는지요? 어떠한 사건으로 누군가의 삶에 심각한 고통과 정체성의 왜곡이 일어났을 때, 섬에 갇힌 자는 그것은 오직 당사자의 문제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당사자의 고통일 뿐일까요. 당사자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거나 혼자 병원에 가서 후유증을 치료하면 그만일 뿐인 개인적 고난일 뿐일까요.



먼저 개인의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의 생명 혹은 신체적 평온에 손상을 가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통합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을 일컬어 '트라우마' 라고 합니다. 번역할 때에는 보통 '외상(外傷)'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트라우마라는 용어 자체가 잘 알려진 편이라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트라우마'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 자체는 '외부의 충격' 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보통은 그 속성 상 권력이나 힘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힘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커다란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격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내면에 공포,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트라우마 후유증의 핵심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가지 심리적 대처 방식이나 자기만의 자기 보호법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대처 방식 혹은 자기 보호법을 발달시키고 작동시키는 주체를 '자아(나: '자아' 라는 말은 '나'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아' 의 개념을 확고히 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도 실은 '자아(ego)' 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나(독일어로 Ich)'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를 'ego' 로 어렵게 번역한 것은 미국의 '지적인' 의학자들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아' 라는 번역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니 '자아' 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나' 와 같은 말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며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를 조절하는 당사자로서 사람의 정체성과 성격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세상과 만나고 이에 대처하는 양식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자아입니다.

만약 충격이 사라진 뒤에도 충격에 대비하는 자아의 대처 방식이 계속된다면 삶

은 또한 끝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어 집니다. 이를 테면, 폭풍우에 대비해서 창문을 단단히 단속하고 단단한 덧문을 덧씌웠는데, 폭풍우가 다 지나간 뒤에도 덧문을 벗겨내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는 경우의 삶은 마치 영영 폭풍우가 끝나지 않는 암흑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대처했던 방식이 일생 내내 지속된다면 그러한 삶 역시 트라우마에 구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트라우마 후유증의 핵심으로, 이 때 자아는 트라우마로 인해 변형되었다, 혹은 왜곡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도의 외침은, 즉 역사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트라우마의 경험에 집단적인 속성이 있으며, 그것이 공동의 기억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일 때, 특히 사회 체계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집단에게 가해했을 때 그것을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권력이 의문시 되지 않은 채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경직된 신념과 왜곡된 문제해결방식을 고수하면서 속수무책으로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질상, '나' 와 무관한 '너' 의 트라우마란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불가피하게도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지배와 종속 관계의 속성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립된 만큼 트라우마의 치명성은 증가합니다. 트라우마는 치명적인 만큼 자아를 변형시키며 따라서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만약 '나' 의 트라우마와 '너' 의 트라우마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트라우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역사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섬에 갇혀버린 우리의 역사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 섬의 이름은 국가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섬의 이름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데 분노하고 박지성과 김연아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섬의 이름은 국가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을 쫓아낸 국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생생한 역사의 기억과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증오, 무력감, 무관심 때문에, 꼭 걸어 잠근 창문과 단단한 덧문 때문에 건강한 역사적 자아



를 회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한 과도기의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역사에 의해 삶이 변형되고 침해당한 사람들은 국외자로 고립된 채 목숨만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외자의 존재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구멍이 뚫린 역사 인식을 공유할 뿐이라면 나 자신의 삶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섬에 고립된 나는 추방당한 이웃과 만날 수 없고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깊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상실하여 개인적 성취 말고는 별다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성숙한 우리의 자아상 또한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징후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동안 산 저의 친구에게 '한국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준답시고 한국인 친구 한명이 그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속 얘기를 털어놓고 살면 손해야. 일단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야. 약한 내색을 하지 마.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라고." 저의 친구는 그 말을 전달하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렇게 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지 않아?"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라는 원칙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화와도 같은 무엇이지요. 그 신화는 아주 단단하여 마치 그 뿌리에 거대한 집단적 경험이 녹아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죽음과 생의 집단적 경험에서 터득한 어떤 커다란 역사적 자아 같은 것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집단적 경험에서 개개인은 '힘이 있어야 죽지 않는다'는 변형된 자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변형된 자아는 국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개인의 자아를 이렇게 단련시킵니다. 발전하려면 폭력과 규제는 불가피해. 권력을 쥐려면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도 돼. 권력이 있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아. 모난 정이 돌 맞아. 트라우마의 역사가 배제된, 국가의 공식적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한 내면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의 고통에 공

감하며 살기 보다는 거친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방법만을 익히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반복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배경의 통시적 흐름을 인식할 수 없고 내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사고 체계의 기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사에 갇힌 우리는 내 삶과 타인의 삶이 만나는 역사적 장을 체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았는지, 내가 달리 살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다른 주체의 다른 이름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하는 여러 큰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통합된, 권력자가 손대지 않은, 나와 너의 역사이고, 사람의 역사입니다. *김민*

글 최현정 |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임상심리학자.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피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